

눈길끄는 특·특·행·정

# “열나면 체온계 색깔이 변해요”

순천시, 어린이집에 붙이는 체온계 지원  
고열뎀 노란 색깔로 변해 징후 쉽게 파악



순천시가 모든 어린이집에 붙이는 체온계 15만여개를 지원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붙이는 체온계’는 피부에 붙여 고열을 감지할 수 있는 밴드로, 체온이 37.5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린이의 발열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날부터 전체 어린이집 202곳, 780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매씩 약 15만6000개의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한다.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체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방역지침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스티커 형식의 붙이는 체온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티커 형식의 붙이는 체온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오지에선 무선방송이 딱이네”

구례군, 105개 마을 원격방송시스템 설치  
산불 예방·재난지원금 수령 안내 등 전달



구례군이 전체 155개 마을 중 105개 마을에 원격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했다.

구례군은 전체 155개 마을 중 105곳에 원격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선방송시스템은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안내방송을 할 수 있고 난청지역 주민들도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해 안방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수령 안내, 마스크 보급, 거리두기 운동 안내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구례군은 평가했다. 녹음된 방송을 재정취할 수도 있어 주민들이 방송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다.

구례군은 오는 2022년까지 무선방송시스템을 모든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방송 난청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알 권리 보장에 대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불 예방, 무단쓰레기 투척 금지, 세금 납부,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 관계자는 “기존에 구축한 재난·예·경보장비와도 연동하면 태풍, 구제역, 폭우, 폭설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해상 활강 세계 최장 ‘남열 공중하강’ 만끽

고흥군, 총사업비 30억 들여 개장  
1.53km 질트랙 시속 70~80km 스티

고흥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일원에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이 문을 열었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질트랙)은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준공됐다.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를 통해 ㈜질트랙이 운영자로 선정됐다. 질트랙은 최근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험 운영을 마무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별도 개장식 없이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53km에 달하는 이 시설은 단일로는 세계 해상 최장거리를 자랑한다. 활강 4라인에 기존 시설과 달리 일반형 외에도 체어형, 슈퍼맨형 등 다양한 하강유형을 체험할 수 있다. 최대 활강속도 시속 70~80km로 고속 활강 스티와 저속 구간에서는 수려한 해안 경관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3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고흥군민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외지 이용자는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환급해 고흥의 먹거리·살거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과 여수를 잇는 팔영대교 등 연륙·연도교 개통에 맞춰 체험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질트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활강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행복 나눔 냉장고”서 먹을 만큼 가져가세요”

여수시, 주민센터 5곳서 운영

여수시는 주민센터 5곳에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행복한 나눔 냉장고’가 설치된 곳은 만덕·서강·월호·중앙·한려동 주민센터다.

나눔 냉장고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슈퍼마켓 등에서 후원받은 식품품으로 채워지며,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해 주 5일 운영하며, 일주일일에 한 번 ‘기부와 나눔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전남도의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등 2400만원을 투입해 냉장고와 식품진열대, 식품 구입, 현관 제작 등을 마쳤다.

장영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행복한 나눔 냉장고로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덩



달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역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광양버스터미널 다음달 3일부터 운영 재개...시가 직영

광양시는 다음달 3일부터 광양버스터미널 운영을 재개한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양버스터미널 소유자와 건물과 토지 3600㎡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 기간은 3년이며, 연 임대료는 1억9000여만 원이다.

임차한 시설은 플랫폼과 주차장, 대합실, 화장실, 매표실, 사무실 등이다.

터미널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포장하고 화장실을 정비하는 등 시설을 보완했다.

광양시는 터미널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달 말에는 16개 운송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이다.

통합전산시스템 설치와 가동 준비를 마친 뒤 8월 3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광양을 임시매표소는 다음달 2일까지만 운영한다.

광양버스터미널 측은 운송회사의 사용자 문제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지난해 10월 광양시에 터미널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